

## 디앤씨미디어, '나 혼자만 레벨업' 넷마블과 게임 개발 착수

- ▶ 던전 공략의 재미를 살린 액션 RPG, 원작 이상의 스토리 몰입감, 차세대 카툰 그래픽 및 화려한 전투 연출 돋보일 것
- ▶ 강력한 웹툰 IP 기반 다양한 게임, 애니메이션 및 드라마 등 영상으로 사업 확대, 킬러 콘텐츠 부문 다각화할 것

<2022-01-27> 웹소설·웹툰 Contents Provider 디앤씨미디어(263720, 대표이사 신현호)의 글로벌 인기작 '나 혼자만 레벨업'이 넷마블과 게임 개발에 착수했다고 27일 공식 발표했다.

디앤씨미디어 관계자는 “이번에 런칭되는 게임은 던전 공략 재미를 극대화한 스타일리시 액션 RPG로, 원작 이상의 스토리 몰입감, 차세대 카툰 그래픽 및 화려한 전투 연출이 돋보여 많은 이들의 기대감을 충족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넷마블과의 게임 개발은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산업 규모가 월등히 큰 게임 산업이 웹툰 IP(지적재산권) 확장의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원 소스 멀티 유즈(OSMU)’ 전략으로 게임을 즐기는 이용자들의 팬덤을 더 강력하게 만들 수 있고, IP 자체의 인지도를 더욱 높임으로써 또 다른 수익원을 창출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디앤씨미디어는 강력한 웹툰 IP를 기반으로 앞으로 다양한 게임, 애니메이션 및 드라마 등의 영상으로도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올해 초 설립된 콘텐츠기획본부를 통해 킬러 콘텐츠 부문을 다각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메타버스 사업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디앤씨미디어 신현호 대표이사는 “넷마블과의 게임 개발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내년까지 성공적으로 런칭해 디앤씨미디어가 한단계 높이 도약하는 성장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나 혼자만 레벨업' 넷마블 게임 런칭 이미지(제공: 디앤씨미디어)

